

#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김민서<sup>1</sup> · 전수영<sup>2</sup> · 조연수<sup>1</sup> · 전훈정<sup>1</sup>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sup>1</sup>, 경북대학교병원<sup>2</sup>

##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on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ts with Delinquent Behavior

Min Seo Kim<sup>1</sup> · Soo Young Jun<sup>2</sup> · Yeon Su Cho<sup>1</sup> · Hoon Jung Jone<sup>1</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p>2</sup>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Methods:** This research is a cross-sectional survey. This study used the 5th-year data of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including 218 middle school students having delinquent behavior.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chi^2$  tes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ver. 23.0). **Result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nd between aggression and self-esteem. Higher aggress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social withdrawal and lower self-esteem. The results of the 2-step regression are as follows. Agg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whereas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withdrawals.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21% of the variance of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accounted for by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aggression was social withdrawal.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arlier screening and intervention programs to increase self-esteem and decrease social withdrawal for early adolescents should be developed to prevent aggression.

**Key Words:** Aggression, Adolescent, Juvenile delinquency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초기 청소년기에는 11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이 해당되며[1] 이 시기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이 시기는 아동기의 끝맺음과 청소년기의 시작을 동시에 내포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성적 측면에서 신체와 생리적 변

화를 거치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혼란 과정에 있으며, 권위에 대한 반항, 감정의 양면성 등 정신적 불균형과 충동성 및 공격성이 증가되는 시기이다[2]. 초기 청소년들은 가족의 기능성 상실이나 비정상적인 학교교육 등의 적응상의 어려움 [2]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써, 문제행동이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고 더 나아가 판단력의 결여로 인해 자살이나 비행, 범죄행위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3]. 초기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같이 표출된 행동으로서의 청소년 비행은 공

Corresponding author: Soo Young Ju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30 Dongdeokro, Jung-gu, Daegu 41944, Korea.  
Tel: +82-53-200-5114, Fax: +82-53-421-2758, E-mail: sy0340@naver.com

Received: Nov 5, 2017 / Revised: Dec 11, 2017 / Accepted: Dec 12,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격성이 발현되는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경찰청의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일탈행동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죄자 수는 92,347명으로 보고되었다[4]. 청소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는 상반되게 비행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극단적으로 폭력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5].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은 이후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 즉, 공격성은 단순히 학교폭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달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점차 악화되기 쉬우므로 초기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대한 예방과 초기 개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학교, 가정 등의 사회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축적된 부정적 감정이 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6].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불안감이 강하며, 대인관계도 좋지 않고, 지도력,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아멸시, 자아거부, 부정적인 자아평가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아가 건전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안정성이 결여되어 현실 세계의 고통을 회피하고 왜곡하는 행동을 표출하게 되면서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3]. 또한 이들은 부모의 관심, 가족유대감과 같은 가족의 심리적 기능이 낮을수록[2], 학교환경에서의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는 사회적 부작용, 정신장애 및 부정적 감정의 위험요소가 있다[7]. 낮은 사회적 위축은 사회기술의 정상발달을 방해하여 사회기술이 결핍된다. 결국 사회적인 불안이 더욱 강화되어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청소년 비행을 다룬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어떠한 특성이론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지에 대해 검증하거나 개인요인, 가정요인, 친구요인 등에서 한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에 대해 설명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9-13]. 그 중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크게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와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로 분류할 수 있다[14]. 내재화 문제는 심리적 문제,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신체화 증상 등이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문제를 뜻하며, 외현

화 문제는 아동·청소년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공격성, 과잉행동, 비행 등의 외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10].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가운데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로 언급되는 변수는 공격성이 대표적이다[14-16]. 공격적 행동이 청소년 시기부터 나타나게 되면, 이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현재를 넘어 미래의 부작용까지 초래 될 수 있으므로 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하지만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대상자의 범위와 변수의 설정에 있어서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를 나누어 비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이 아닌 1회 이상의 범법적 행위로서 비행을 한 초기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정도를 파악한다.
-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차년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Korea Youth Child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 조사하는 단기종단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2014년) 자료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 조사하는 단기종단 연구로 설계되었으며 층화다단계락추출법으로 모집되었다. 이 가운데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비롯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Lee 등[12]의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의 수준으로 최소 표본수는 194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95개 학교의 2,070명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비행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대상자를 선정기준으로 무응답과 무성의한 답변이 많은 자료를 제외한 남자 174명, 여자 44명으로 총 218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계획서와 설문지에 대해 K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2017-0108)을 받아 진행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부모의 구성, 주관적 가계소득, 건강상태, 학교규칙 준수, 형제·자매 수, 팬텀활동 등의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비행경험

비행경험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원자료(Raw data)에서 조사된 14가지 항목 중 성 관련 비행을 제외한 13개의 비행만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흡연, 음주, 무단결석, 무단외박, 타인 심하게 놀리기/조롱하기, 집단따돌림, 패싸움, 타인 심하게 때리기, 협박하기, 타인의 돈/물건 훔치기, 타인의 돈/물건 훔치기, 성폭행/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비행경험으로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행경험 13개 문항 중 1년 동안 경험 횟수를 조사하여 1회 이상 비행경험 있는 대상을

말한다.

### 3) 공격성

공격성은 Jo와 Yim [17]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연구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88이었고[17], 본 연구에서 .81이었다.

###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 [18]가 개발하고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19]에서 발간한 심리척도 핸드북에서 활용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연구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77이었고[18], 본 연구에서 .72였다.

### 5)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Kim과 Kim [20]이 개발한 도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본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연구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20], 본 연구에서 .90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분석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및 최대값으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경험 청소년의 공격성의 차이는 t-test 및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으며,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공

선성 진단 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5차년도 데이터(2014년)인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총 2,070명의 대상자 중 비행경험이 있는 대상자 218명의 설문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 $t=-2.06, p=.040$ ), 건강상태( $F=11.65, p<.001$ ), 학교규칙 준수 수준( $F=4.10, p=.018$ ), 형제자매수( $F=3.70, p=.026$ )에 따라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비율은 남학생 79.8%, 여학생 20.2%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4배가량 높았으며, 여학생의 공격성이 13.611±3.85점으로 남학생 12.422±3.32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매우건강’이 41.3%, ‘건강한 편’이 51.4%, ‘건강한 편’이 7.3%를 차지하였으며, 건강상태가 ‘매우건강’ 11.68±3.60점, ‘건강한 편’ 13.01±3.05점

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 15.75±3.15점으로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규칙 준수 수준은 ‘상’ 37.2%, ‘중’ 57.8%, ‘하’ 5.0%였으며, 학교규칙을 지키는 수준이 ‘상’ 12.12±3.23점, ‘중’ 12.79±3.27보다 ‘하’의 경우 15.18±5.67점으로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형제자매 수는 ‘형제자매 없음’ 17.3%, ‘형제자매 1명’ 57.3%, ‘형제자매 2명 이상’ 25.2%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 없음’ 13.54±3.51점, ‘형제자매 1명’ 12.28±3.39점, ‘형제자매 2명 이상’ 11.16±3.36점 순으로 형제자매가 적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공격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수준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의 점수 범위는 6~24점이었고, 평균은 12.66점이었다. 자아존중감의 점수 범위는 16~38점이었고, 평균은 29.12점이었다. 사회적 위축의 점수 범위는 5~20점이었고, 평균은 10.91점이었다(Table 2).

### 3. 공격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간의 상관관계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자아존중감, 사회

**Table 1.** Difference of Aggression according to Subject Characteristics

(N=218)

Variables	Categories	n (%)	Aggression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Boy	174 (79.8)	12.42±3.32	-2.06	.040	
	Girl	44 (20.2)	13.61±3.85			
Parent's composition	None	16 (7.3)	14.06±3.59	1.45	.237	
	One parent	20 (9.2)	12.40±3.50			
	Parent	182 (83.5)	12.57±3.43			
Household income perception	High	32 (14.7)	13.84±3.90	2.22	.111	
	Middle	152 (69.7)	12.46±3.39			
	Low	34 (15.6)	12.44±3.18			
Health status	Very healthy <sup>a</sup>	90 (41.3)	11.68±3.60	11.65	<.001	a, b < c
	Healthy <sup>b</sup>	112 (51.4)	13.01±3.05			
	Unhealthy <sup>c</sup>	16 (7.3)	15.75±3.15			
Keeping school rules	High <sup>a</sup>	81 (37.2)	12.12±3.23	4.10	.018	a, b < c
	Middle <sup>b</sup>	126 (57.8)	12.79±3.27			
	Low <sup>c</sup>	11 (5.0)	15.18±5.67			
Number of siblings	None <sup>a</sup>	38 (17.3)	13.54±3.51	3.70	.026	a > b > c
	One <sup>b</sup>	125 (57.3)	12.28±3.39			
	≥ Two <sup>c</sup>	55 (25.2)	11.16±3.36			
Fandom activity	Yes	60 (27.5)	13.07±3.59	1.07	.286	
	No	158 (72.5)	12.51±3.40			
Total		218 (100.0)	12.66±3.46			

**Table 2.** Agg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Level of the Subjects

(N=218)

Variables	Min	Median	Max	M±SD	Skewness	Kurtosis
Aggression	6	15	24	12.66±3.46	.10	.31
Self-esteem	16	28	38	29.12±4.05	.07	-.12
Social withdrawal	5	13	20	10.91±3.86	.23	-.34

**Table 3.** Correlation between Agg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N=218)

Variables	Aggression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1		
Self esteem	-.30*	1	
Social withdrawal	.34*	-.35*	1

\* $p < .001$ .

적 위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r = -.30, p < .001$ ),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 $r = .34, p < .001$ ),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r = -.35, p < .001$ ),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 4.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2단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단변량 분석에서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성별, 건강상태, 학교규칙 및 형제자매 수를 가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고, 다음 단계는 초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요인들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8~1.89로서 기준치 10 이하로 오차항들간에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Durbin-Watson 검정 통계량 값은 1.979~2.314로 2에 가까워 독립변수 간의 자기 상관이 없었다. 잔차의 정규 p-p도표와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선형성을 보였고,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로 초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건강상태, 학교규칙 및 형제자매 수를 투입한 결과 공격성을 14% 설명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인으로 나타났다( $F = 5.90, p < .001$ ). 초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상태와 학교규칙 변수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고( $\beta = 0.17, p = .0014$ ;  $\beta = 0.26, p < .001$ ),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는 청소년보다 낮게 준수하는 청소년이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20, p < .001$ ). 2단계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결과 공격성을 21% 설명하여 1단계에 비해 7%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상태와 학교규칙 준수,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은 청소년보다 좋지 않은 청소년이 공격성이 높았고( $\beta = 0.17, p = .011$ ),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는 청소년보다 낮게 준수하는 청소년이 공격성이 높았으며( $\beta = 0.19, p < .001$ ),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고( $\beta = -0.14, p = .043$ ),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beta = 0.22, p < .001$ )(Table 4).

## 논 의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특히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의 변인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성별, 건강상태, 학교규칙 준수 수준, 형제자매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지만[14,21], 외현적 공격성이 아닌 관계적 공격성의 측면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22]와는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성 비율이 80:20으로 두 군간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학생의 경우 표현되지 않은

**Table 4.**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on Aggression

(N=218)

Variables	Model 1				Model 2			
	B	$\beta$	p	VIF	B	$\beta$	p	VIF
(Constant)	10.78	-	<.001	-	12.48	-	<.001	-
Gender	0.91	0.11	0.112	1.10	1.03	0.12	0.062	1.10
Health status 1	1.20	0.17	0.014	1.11	0.65	0.09	0.164	1.23
Health status 2	3.46	0.26	<.001	1.18	2.31	0.17	0.011	1.28
Keeping school rules 1	0.67	0.10	0.153	1.08	0.59	0.09	0.185	1.09
Keeping school rules 2	3.16	0.20	<.001	1.10	3.03	0.19	<.001	1.12
Number of siblings 1	-1.08	-0.16	0.071	1.87	-0.95	-0.14	0.103	1.88
Number of siblings 2	-0.01	0.01	0.995	1.86	-0.34	-0.04	0.617	1.89
Self-esteem					-0.12	-0.14	0.043	1.31
Social withdrawal					0.20	0.22	<.001	1.22
$R^2=.16$ , Adj. $R^2=.14$ , $F=5.90$ , $p < .001$				$R^2=.24$ , Adj. $R^2=.21$ , $F=7.41$ , $p < .001$				

Dummy variables: Gender (Boy=0, Girl=1); Health status 1 (Very healthy=0, Healthy=1); Health status 2 (Very healthy=0, Unhealthy=1); Keeping school rules 1 (High=0, middle=1); Keeping school rules 2 (High=0, Low=1); Number of siblings (None=0, One=1); Number of siblings (None=0, Two or more=2).

잠재된 공격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비행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격성의 하위요인을 비교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루의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은 그들 생활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25]. 본 연구에서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일지라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청소년들은 공격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활동이 대상자의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스포츠의 정화효과(catharsis effect)로 청소년의 공격성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23]와 학교생활의 교칙이 중학생들의 공격성에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4]는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비행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지면서 학교친구들과 친해지고 마음을 나눌 기회가 생겨 학교로부터의 억눌린 욕구가 해소되어 학교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그들의 공격성이 낮춰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초기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며 신체적 활동욕구가 왕성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신체활동 참여는 또래집단의 역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격성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므로, 비행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데 선행연구에서도 가정환경요인 중 가족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26]. 가족관계란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 가족 간의 원활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족 내에서 상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반응하는 가족들의 능력[26]으로 부모가 자녀를 지지할수록 자녀의 우울 및 외현화문제가 낮아졌다[27]. 이처럼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원활하게 하며,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 자녀일수록 부모와 자녀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난다[9].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이 증가할수록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28]. 하지만 가족 간의 소통이 충족이 되지 못하면 이로 인해 반사회적인 인격을 지니게 될 확률이 높아 청소년들은 보다 높은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27]. 따라서 물리적이면서도 심리적으로 가깝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에게 장기적으로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비행경험 청소년이 처한 문제를 가정에서 가족전체의 문제로 전환하여 진정성을 가지고서 이해하며,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세심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중양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Cho 등의 연구[28]의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학교, 가정 등의 사회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경험으로써 축적된 부정적 감정이 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5].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므로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1].

본 연구의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은 중양값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을 조사한 Lee 등의 연구[21]에서 일반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진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이 더욱 강화되어 결국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의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들의 공격성은 중양값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초기 청소년들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미성숙하므로 공격성이 점차 증가한다는 선행연구[22]는 본 연구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정도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공격성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위축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Kim과 Kim [16]의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집단과 무비행 청소년집단과의 공격성을 비교하였는데, 비행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인정과 자아존중감 부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Kim과 Lee [24]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누구나 호기심이 많아서 강한 자극을 추구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험을 얻기 위해 사회적 일탈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자극을 추구하는 동기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비행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일탈의 경험을 통해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경험을 건강한 행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사회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성하는데 필요한 지지체계의 구축과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위축, 건강상태, 학교규칙 준수 수준 및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의 2차년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결과[21]가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였다.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기 내재화된 문제 중 하나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경향성[29]으로써,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피하며 억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힘이 없고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 한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개별화하여 점차 가정 밖의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는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이에 따라 공격성이 나타난다[30]. 사회적 위축이 또래관계를 비롯해서 사회적인 관계의 경험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였다[25]. 사회적 관계의 확대가 초기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중 하나이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는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축된 비행 청소년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이들에게 긍정적인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은 사회에 반격을 가하고, 잃어버린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해 비행에 가담한다[24].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던 소아기에서 보호 요소들이 줄어들면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정서적, 경제적 문제들에 노출되면서 스트레스와 혼돈을 겪게 된다. 그들이 좌절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여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대처 방식으로 표출하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어 결국 만성적인 비행에 다다르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다[13]. 또한 이들은 자신에 대한 만족 및 수용정도가 낮아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안정성이 결여되어, 현실 세계로부터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공격성을 표출한다[21].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사회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전문가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리치아웃(reach out)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원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청소년 중 비행을 경험한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증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이에 비행청소년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주며,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축을 감소하고 차별적인 사회정서적 중재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결론

본 연구는 비행경험을 가진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공격성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공격성의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초등학교 4학년의 5차년도 자료(2014년)를 활용하여 비행경험을 가진 초기 청소년 2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증대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을 조기 예방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상호작용이나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입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에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위축을 줄여 줄 수 있는 상담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개념들을 다른 도구로 측정된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속적인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정서문제의 변화 추이에 대해 초기부터 후기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사회정서 발달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초기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서 문제의 발달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다른 중요한 변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1. Ko YH, Hong HJ. The analysis of needs for development of early adolescence adaptation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12;18(2):233-262.
2. Lee SO, Choi YH. Influences of family environment risk factors and ego resilience on The early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4;12(3):484-494. <https://doi.org/10.5932/JKPHN.2014.28.3.484>
3. Lee DN. A study on the correctional policy through comparison on juvenile delinquents and normal adolescents: Focusing on self-esteem and socialit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14;12(1):169-179. <https://doi.org/10.9708/jksoci.2014.19.1.169>
4.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orean police crime statistics in 2016 [Internet]. Seoul: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6 [cited 2017 October 24]. Available from: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97/2016/2016\\_07\\_3.pdf](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97/2016/2016_07_3.pdf)
5. Jang SJ.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delinquency: Focus on moder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14;27(27):275-298.
6. Jang YS, Cho AM.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maladjustment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and self-esteem.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2007;4(1):123-136.
7. Park RG, Kang WS. Emotion and behavioral character of low-income class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2006;1(1):1-23.
8. Lee SK, Lee TH, Han YS.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victimization and cyber delinqu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15;(50):27-53.
9. Yoon OK. A study on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Comparing relative effects of the individual, family, school, community contex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2008;38(38):107-138.
10. Liu J. Childhood externalizing behavior: Theory and implication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004;17(3):93-103.
11. Cho YS, Gang MH, Oh KO. ADHD symptoms,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juvenile offender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11(12):657-663. <https://doi.org/10.14400/JDPM.2013.11.12.657>
12. Lee SK, Lee TH, Han YS.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victimization and cyber delinqu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15;(50):27-53.
13. Kim GS, Lee HC. The impact factor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Educational Sociology Studies. 2007;12(2):1-22.
14. Lim JS. An Exploration on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and aggressive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11;13(2):121-148. <https://doi.org/10.16999/kasws.2009.40.4.101>
15. Lee HJ, Wi SA, Kim BJ. A study of agg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and change. Korean



-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5;20(4):675-695.
16. Kim HS, Kim HS. Aggression among Korean adolescents: A comparison between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007;35(4):499-512. <https://doi.org/10.2224/sbp.2007.35.4.499>
  17. Jo BW, Yim K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15(4):729-746.
  18.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 326.
  19. Behavioral Sciences Research Center. *Psychological scale handbook*. 2nd ed. Seoul: Hakgisa Press; 2000. p. 1-392.
  20. Kim SH, Kim KY.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1998;16(4):155-166.
  21. Lee TH, Lee SY, Han YS.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ducation and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Using multi-level growth modeling.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5;21(2):131-158.
  22. Card NA, Stucky BD, Sawalani GM, Little TD.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 analytic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tercorrelations, and relations to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2008;79(5):1185-1229.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8.01184.x>
  23. Kim ES, Kim KW, Lee HW.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sport activity on aggressive attitudes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Exercise Professionals*. 2014;16(1):53-61. <https://doi.org/10.15758/jkak.2014.16.1.53>
  24. Kim OW, Lee SJ. Influence of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P.E. Activities on aggressiveness and ego-resilience in youth. *The Korean Journal of Growth and Development*. 2017;25(1):39-46.
  25. Kim MY, Jo YJ, Park BG. Effects of relationship with family, teachers, and friend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2012;22(2):49-77.
  26. Chung SM, Jung EH, Lee EA. The effect of stress related with parents and parent support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pover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2010;91(1):273-295.
  27. Ha YH, Edwards CP. Causal relationships of adolescent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004;25(2):121-132.
  28. Cho, YS, Gang MH, Oh KO. ADHD symptoms,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juvenile offender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11(12):657-663. <https://doi.org/10.14400/JDPM.2013.11.12.657>
  29. Lee BJ, Min WH, Kim JE. A study for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An exploratory approach based on developmental-contextualism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4;21(8):317-346.
  30. Bongers IL, Koot HM, Van der EJ, Berhulst FC.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003;112(2):179-192. <https://doi.org/10.1037/0021-843X.112.2.179>